

엉뚱한 집 급습한 경찰, 290만 달러 배상

시카고 경찰이 엉뚱한 집을 급습해 집주인에게 굴욕감을 안겨 시 당국이 290만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13일 시카고트리뷴에 따르면 시카고 병원의 사회복지사인 영(51·여)은 2019년 2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려던 차에 경찰의 급습을 받았다. 영은 “잘못 알고 온 것 같다.”고 상황을 수습하려 했으나, 경찰은 벌거벗은 상태인 영에게 수갑을 채운 뒤 집안을 수색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의 집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이후 압수수색 영장이 잘못된 주소지로 발부된 사실이 밝혀졌다.

영은 최소 16초간 완전한 알몸 상태로 13명의 남성 경찰관 앞에 서 있었고, 이후 경찰관 2명이 영의 몸에 재킷과 담요를 둘러준 것으로 알려졌다.

영은 시를 상대로 한 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카고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9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금액 산정 배경에 대해 “경찰 1명당 100만 달러, 노출



▲ 앤재넷 영. 사진=AP

시간 1초당 100만 달러로 책정해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에 대한 배상금 합의안은 시카고 시의회 재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시카고 경찰의 부당 행위를 조사하는 독립수사기관 COPA(Civilian Office of Police Accountability)는 이 사건에 개입된 8명의 경찰관에 대해 해고 또는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SNS를 달군 브라질 소년의 크리스마스트리

지난달 8일, 브라질 북동부 마라냥 주 피네이루의 마을에서 살고 있는 12세 소년 가브리엘 실바는 어느 때처럼 마을 쓰레기 매립장에서 쓸만한 물건을 찾던 중 작은 크리스마스트리를 발견하고 집어 들고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이 모습은 프리랜서 사진기자 카메라에 포착됐고 이 사진은 곧바로 소셜미디어(SNS)를 타고 널리 퍼졌다.



▲ 주운 크리스마스트리를 살펴보는 가브리엘 실바. 사진=AFP 연합뉴스

가브리엘은 “나는 지금까지 한번도 크리스마스트리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가브리엘은 쓰레기 매립장 인근 오두막에서 어머니와 두 형과 살고있다. 하루 일과는 학교에 다녀온 후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할 만한 물건을 찾아 내다파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은 약 600헤알(약 100달러) 정도지만 가난한 실립에는 큰 돈이다. 가브리엘

의 어머니인 마리아 프란체스카(45)는 “아들은 학교에 다녀온 후 대부분의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낸다.”면서 “거리에 그냥 놔두면 마약이나 중독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브리엘의 사연이 알려지자 브라질 각지에서 음식은 물론 옷과 매트리스 등 다양한 기부 물품이 쏟아졌다. 특히 가브리엘 가족의 집에는 쓰레기장에서 주운 것이 아닌 진짜 커다랗고 반짝이는 크리스마스트리도 도착했다.

현지의 국선변호사인 에우리코 아루다는 “쓰레기장은 마치 세상의 끝에 나타나는 종말의 현장 같다.”면서 “이곳은 빈곤층 중에서도 최하층민이 생활하는 곳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들 위해 장난감 행사 나선 아버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의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 장난감 행사에 나선 아버지의 사연이 SNS에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중국 쓰촨성 청두시 일대에서 장난감 행사를 하고 있는 한 씨와 그의 아들 현현 군(14세).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한 씨가 장난감 행사를 시작한 것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4세였던 현현 군은 자폐 진단을 받았고, 아동 전문병원 의료진 조차 현현 군의 회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을 정도로 현현 군의 자폐증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집 안에서만 생활했던 현현 군은 아버지의 장난감 선물을 풀며 볼 때만 환한 웃음을 보였다. 이에 한 씨는 현현 군이 불특정 다수와 만나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나와 장난감 행사를 시작했다. 그의 옆에는 늘 현현 군이 자리했다.

실제로 한 씨의 이 같은 현현 군의 사회성 배양시키기 계획은 큰 성공을 거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이 촬영한 영상 속 현현 군은 장난감을 구매하려는 손님이 다가가자, 능숙하게 말을 하며 장난감 판매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한 씨는 “나와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를 준비해서 아이가 세상에 혼자 남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주고 싶다.”고 말했다.



▲ 현현 군(14). 사진/기사원문=서울신문 나무뉴스



Thank You Dental!

Implant Orthodontic General Dentistry



Special 1

Free Consultation

Digital panoramic x-ray & 3D CT

Special 2

Implant \$2,000 \$1,200

환자 맞춤 이식 및 관리
뼈이식시 자가혈 치료 무료 (Reg. \$500)

뼈가 부족하거나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Thank You Dental에서는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CBCT 구비, 자가혈 CGF 치료, 최상의 장비 구비 및 철저한 소독

풍부한 임상 경력, 임플란트 전문, 일반치과, 교정치과, 전문 치위생사와 함께 일하는 원스탑 종합 치과

OC (714) 772-5656

1721 W. Katella Ave #A, Anaheim, CA 92804

한인 담당 매니저 Annie

임플란트, 구강외과 교정 전문의 일반 치과 치위생사

Dr. Michael Ahn
Dr. Dan Nguyen
Dr. Young Kim, Dr. Hoang Viet
Kelly Nguyen, Mindy Pham

각종 보험 (PPO) 메디칼 환영